

인구 감소지역·지방 미분양 구입 '주택 수' 제외

정부 1·10 주택대책 발표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대책에 지방 건설기업의 여건 개선과 주택 수요 진작이 담겼다.

기존 1주택 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고 신축 오피스텔, 빌라 구입 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급리·고불가로 주택건설 사업성이 악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불안으로 공급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자, 공급원화보다 적극적인 수요 진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 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1세대 1주택 특례...재건축·재개발, 구제서 지원대상으로 전환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에 정책 우선 순위...정책 방향 탈바꿈

정부는 또 준공 후 미분양 추이,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

또 앞으로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줄여 지방의 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주택 구입을 촉진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비아파트 수요 촉진에 임대공급 확대=정부는 또 소형 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오피스텔 등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가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증부세 증가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증가에도 배제된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증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 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주택과 함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도 2년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주택은 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올해 1월 10일 이후 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 구입한 미분양 주택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소형 주택과 달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기존 1주택자가 구입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증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PF대출 대환보증 등 통해 건설사 자금흐름 개선=정부는 주택공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 및 사업장별 재구조화·정상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5조원 규모의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 대환보증을 발급해 높은 이율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시행사와 대출기관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PF 관련 정보를 주택 관련 단체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준공기한이 지난 시공사에 대해서는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시 유동성 공급 및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시정할 방침이다. 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대어음(PF-ABCP)에 대한 대출 전환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PF 대출 시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확대(3조원→6조원) ▲비주택 PF 보증 도입 확대(3조원→4조원) ▲자금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 확대(3000억원→4000억원)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바에도 이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현재 10년인 임대무기간을 6년으로 낮춘 단기 등록임대를 되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로나 엔데믹 효과...광주·전남 고용시장 안정

지난해 고용률 60.1%로 전년대비 1.5%p 상승...실업률은 0.4% 줄어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이 안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엔데믹 효과가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고용률은 60.1%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지난해 광주시 취업자는 76만9000명으로 전년(75만명)에 견줘 1만9000명(2.5%) 증가했고, 경제활동인구는 78만9000명으로 1만6000명

(2.1%) 증가했다.

실업률은 2.5%로 전년대비 0.4%p 감소했고, 실업자 수는 2022년 2만2000명에서 지난해 2만명으로 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가 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는 49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6000명(-3.2%) 줄어 들었다.

무엇보다 2020-2021년 광주지역 실업률이 각각 3.9%, 3.6%까지 치솟았던 것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은 안정세를 찾았다는 분석이다.

전남의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대비 0.6%p 증가한 66.9%였다.

전남 취업자 수는 101만9000명으로 전년(101만1000명)보다 8000명(0.8%) 증가했고, 경제활동인구 역시 104만2000명으로 전년(103만4000명)에 견줘 8000명(0.8%) 증가했다.

전남의 지난해 실업률은 2.2%로 전년대비 같았고, 실업자 수는 전년 보다 200명 감소한 2만3000명이었다.

전남지역 실업률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다.

전남의 실업률은 지난 2020년 2.4%, 2021년 2.3%, 2022년 2.2%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2.2%를 나타냈다.

고용률은 2020년 63.9%, 2021년 64.6%, 2022년 66.3%, 지난해 66.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주택담보대출 갈아타세요"

비대면...우대금리 등 적용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정책 시행에 따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사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광주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보유했더라도 기존 금융기관 방문 없이 '광주 Wa 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광주은행 주택 담보대출 상품인 'KJB 모바일 아파트 대출'로 담보대출을 옮길 수 있는 대출이동 시스템이다.

갈아타기 서비스는 광주 Wa 뱅크 앱 외에도 대출 비교 플랫폼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핀다에서 한도 및 금리 조화가 가능해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했다.

타 은행에서 광주은행 'KJB모바일아파트대출'로 갈아타면 ▲자금 용도에 따른 우대금리 최대 연 0.3%p ▲거래실적에 따라 제공되는 우대금리 최대 연 0.7%p ▲이벤트 우대금리 쿠폰(500억 한도) 최대 연 1.2%p를 모두 적용할 시, 최대 연 2.2%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금리는 최저 연 3.45%, 최고 5.49%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박종준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들이 더 나은 대출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고객 지원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플랫폼과의 제휴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현대차그룹, 도심 비행 'S-A2' 공개 현대차그룹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에 참가해 차세대 기체 'S-A2'의 실물 모형을 최초 공개했다. S-A2는 현대차그룹이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eVTOL(전기 수직 이착륙기)로, 2020년 CES에서 선보인 첫 비전 콘셉트 'S-A1' 이후 4년 만에 공개된 후속 모델이다. <현대차그룹 제공>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참가 접수

15~16일... '산업융드론제어'·'사이버보안' 등 50개 직종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는 오는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2024년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참가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4월 1일 개최하는 광주시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기술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기능경기대회는 광주시 핵심 산업중 하나인 '자동차' 관련 직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산업융드론제어', '사이버보안' 등 총 50개 직종에서 최고 기술인을 가릴 예정이다.

참가 조건은 광주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소속 학교, 기업체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면 연령에 제한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원서는 마이스터넷(http://meister.hrdkorea.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단 국제기

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등은 참가가 제한된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과 함께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및 신입기사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오는 8월 경상북도에서 개최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대회는 일학습병행,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 등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참가를 장려하기 위해 '산업체 근로자 입상 우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meister.hrdkorea.or.kr)를 참조하거나,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 사무국(062-970-17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TF 승인' 가짜뉴스에 비트코인 가격 급등락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짜뉴스 소동에 10일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6시 15분 6438만5000원까지 뛰었다가 10분 뒤엔 6074만8000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6193만원)보다 0.46% 내린 616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가짜뉴스가 게시되는 소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



농협 전남본부 '농협 벼 전남협의회' 임시총회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9일 전남본부 회의실에서 '농협 벼 전남협의회' (회장 김철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회의에는 김철규 회장과 이보형 회장(농협 벼 전국협의회회장)을 비롯해 전남협의회 소속 조합장 4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남 쌀 수급안정과 쌀값안정 대책을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했으며, '23년산 쌀 수급동향 및 조곡거래 상황'을 토대로 정부에 건의

할 수급대책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철규 회장은 "농협은 조곡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벼를 매입해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한 만큼 정부도 조속히 쌀값안정대책을 시행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정부의 쌀 적정생산 목표치 초과달성은 전남 벼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해주신 덕분"이라며, "전남농협도 타작물 재배 확산 등을 통해 전남 쌀의 수급안정과 가격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신년 인사회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한민)는 10일 '2024년 광주전남 산림조합장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22개 회원조합 조합장이 참석한 신년 인사회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상호금융 업적평가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2023년 하반기 전국 상호금융 업적평가를 통해 강진군·담양군산림조합(금상), 신안군·구례군산림조합(은상), 여수시·완도군·장성군산림조합(동상)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날 산림조합 직원들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능기부 봉사단을 결성했다.

한민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2024년은 광주전남 산림조합이 열정과 헌신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면서 K-산림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써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41.98(-19.26)
↓ 코스닥	875.46(-9.18)
↑ 금리(국고채 3년)	3.270(+0.015)
↑ 환율(USD)	1320.15(+4.40)